구암 스님은?

범음범패 전승 남다른 열정

틈틈이 서화…작품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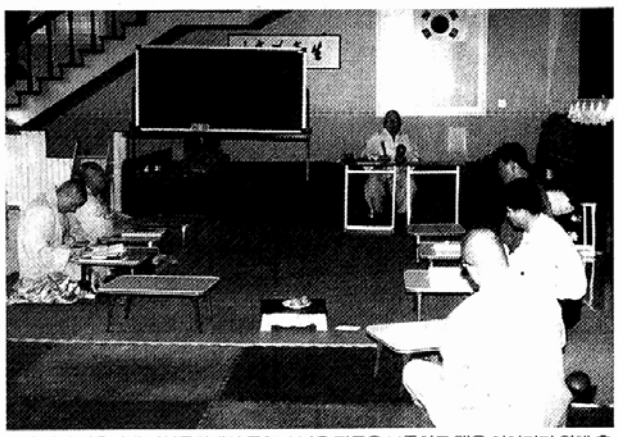
구암 스님은 대한불교 법화종 제6대 종정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자리일 뿐"이라는 스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 직함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세수 76세인 지금도 포교를 위한 원력과 실천은 오히려 젊은 사람을 앞지를 정도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량석, 타종, 예불, 정근, 축원을 단 하루도 빠트리지 않는 구암 스님은 범음범패 전수를 위한 교육을 관음사에서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한다. 또 용담포교원과 불교교양대학에 출강, 법문과 범음범패 교육에 여념이 없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청하는 사찰 법회나 단체에서 법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또 전국서화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을 만큼 스님의 서화 솜씨도 만만치 않다. 수준높은 기량과 그 속에 깃든 가르침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스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즐겨 선물로 주시곤 한다.

천미희 기자

1926년 경남 상북에서 태어난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고 명이 짧다는 걱정을 들으며 11살에 출가를 했다. 인봉 스님을 은사로 수계한 스님은 49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72년에는 당시 범음범패 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였던 용운 스님으로부터 범음범패 의식을 전수받았다.

93년에는 범음범패 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받았으며 96년에는 원형을 잃어가는 범음범패를 고스란히 보존하기 위해 영남범음범패집을 20개의 테이프로 집대성하기도 했다. 스님은 현재 영남범음범패 보존회 이사장을 맡아 범음범패의 맥을 잇는 도제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영남 범음범패 인간문화재인 구암 스님은 전통을 보존하고 맥을 이어가기 위해 후학 양성에도 헌신하고 있다.

밀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불법에 귀의해서 세계평화, 지상정토를 이룩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된 도리라고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법문을 통한 포교에 아주 열성적이다. 또한 평생을 한결같이 이어온 범음 범패 전수 활동도 스님의 수행이력 중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종정이라는 대한불교 법화종의 최고 어른이 된 지금도 영남범음범패 보존회를 이끌고 범음 범패 불교의식 전문교육원을 열어 범음범패의 전승에 힘을 쏟고 있다.

"처음 범음 범패 배울 때 배운 걸 복습하느라 길을 가도 버스를 타도 늘 염불 뿐이었어요. 한번은 법문이 있어서 원동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같이 있던 스님이 합장계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창문에 대고 하고 있었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 "'너와 나 구별없이 다같이 성불하자' 이것이 불교정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호통을 치는 거라. 우리는 그만 조용해졌지. 그런 자차장이 와서 가만히 계시는 스님들을 왜 그러냐고 두둔을 해주는데 마침, 원동에 도착이되어 얼른 내렸지. 으찌나 얼굴이 화끈 거리던지, 하하하!

그런데 젊을 때는 그처럼 연습에 몰두하면 옆의 상황이나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이 허다했어.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도 연습에만 골몰해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를 않았거든. 한마디로 염불 삼매에 든 거지"

스님은 50여년 동안 이어온 염불속에서 무수한 깨달음의 언어들을 만나고 범음의 소리 속에서 우주 생명의 근원과 부처님 세상을 만났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길을 인욕하며 이어온 스님은 이제 존경받는 사표가 되어 후학들에게 자취를 남기고 있다.

10년째 범음 범패를 전수받고 있는 수제자 대원스님(금불사)은 구암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범음 범패에 앞서 수행자로서의 자세나 사람의 도리를 먼저 배웠다고 한다.

진흙탕속의 연꽃처럼

"이해심이 많고 인자하십니다. 염불하고 경 읽은 것에 앞서 계율, 예의가 먼저라고 항상 강조하시죠. 부처님과 스님들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범음이나 범패 의식 자체가 모두 부처님에 대한 예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일 겁니다. 범음을 수행방편으로 삼고 살아오신 스님이고 보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외유내강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구암 스님은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한 목청과 마치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맑은 음색으로 영남 범음범패의 전통을 이어가며 후학들을 기르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은 깨끗한 곳에서 살지 않아요.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진흙탕속에 살지만 그 더러움을 조금도 자신의 꽃이나 잎에는 묻히지 않아요. 즉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속에 처해 있는 불자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름답고 완성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과 같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성불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부처님 자비이므로 세상 누구라도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속진을 털어내려는 갑갑함으로 찾았던 길, 구암 스님의 법문을 새기며 오히려 속진속에서 내 아름다운 완성의 꽃을 피워올려야 함을 깨닫고 확 열려진 마음의 문을 따라 돌아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환기스님



환기(幻機) 스님은 묵언수좌라 불러야 옳다. 안거가 시작되면 환기 스님의 말문은 굳게 닫힌다. 그가 선방에 걸망을 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묵언패(默言牌)를 내놓는 일이다. 결제철마다 묵언 수행을 한지도 벌써 십 년째가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석 달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이 역시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행이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시비분별에 끌리지 않을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귀도 함께 막아야 마장이 적다. 입과 귀를 닫고 있으면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어느 정도 익어지면 오히려 확 트이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 말은 하지 않을 때보다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외부의 시비가 어느 정도 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 때 비로소 넉넉하고 정결한 자신만의 공간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다.

선(禪)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기 응시라고 말한다. 묵언은 이러한 자기 응시의 정갈한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묵언을 통해 당당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

선방에 걸망 풀면 묵언정진

부모님 은혜 아는 출가자

행은 결코 벙어리 흉내가 아니다.

환기 스님은 이러한 묵언 수행을 통해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지도 모른다. 입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을 줄인다는 뜻과 통한다. 묵언수행 후 환기스님은 말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말을 마구 지껄이지도 않고 핏대를 돋우며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얼굴 가득 미소만 짓는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대화나 논리 이전에 따뜻한 가슴이 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를 통해 깨닫는다. 소리 없이 따스한 열기가 전해지는 난로처럼 그의 성품도 이와 같다.

환기 스님은 한 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병치레를 한 적이 있다. 큰 수술을 세 번이나 치르면서 육신의 덧없음을 실감하였다고 한다. 그 일이 환기 스님에게는 커다란 법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단다. 그 후 환기 스님은 몸을 돌보지 않고 용맹정진하고 있다. 지난 여름 안거 때에는 각화사 선방에서 하루 18시간 정진을 마친 구참(久參)이기도 하다. 산철(해제기간에 하는 정진)수행도 마다하지 않던 그가 최근 느슨하게 정진하는 것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서였다.

환기 스님은 정말 효자다. 흔히 출가를 하면 부모와 이별하는 것으로 알지만, 진정한 출가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는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화해다. 환기 스님을 보면 '일등 수행자가 일등 효자'라는 공식이 딱 들어맞는다. 얼마 전 그가 느닷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무심코 넘겼는데, 알고 보니 홀로 남은 노부(老父)의 간병을 위해서였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겨울 안거 때 환기스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위 스님들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출골 부음을 전하지 않은 환기 스님 잘못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신도 몰랐다는 말을 한참 뒤에 들었다.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가족들이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결제 중에 있는 환기 스님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노모의 부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의 그 불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나 환기 스님은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운 모양이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몇 년 전 환기 스님과 미얀마 성지를 순례한 적



이 있었다. 그 때 환기 스님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 모자(母子)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노모를 부축하여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유적지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었다. 그 때, 출가한 스님들이 부모에게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아들을 산에 보내고 눈물짓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었다. 출가는 불효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산중이라고 해서 불효죄의 치외법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환기 스님은 지금 속가에 잠시 머물고 있다. 날마다 정진하듯 아버지의 병간호를 지극히 한다. 걸망 지고 먼 곳에 가지 못하고 여러 날 지내고 오지도 못한다.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나마 간호할 수 있는 것도 해제 기간 뿐이다. 결제 기간이 되면 또 선방으로 향한다.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구족(九族)이 천상에 난다는 경구가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출가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환기 스님이 공부하는 뜻도 여기에 있는 듯 하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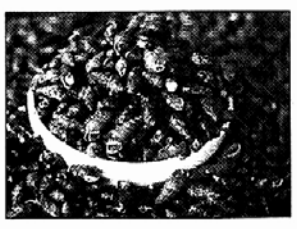
다슬기

예약문의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OLT 프로그램은 삶 속에서의 수련을 뜻합니다.

'나는정말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JUST DO IT!
바로 그것입니다.
On the Life Training Program

OLT 명상프로그램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되어있지만 스스로가 지어낸 관념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혼돈과 무질서로 내몰고 있습니다. 삶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당신은 그것을 고통의 무게로 느끼거나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 속에 들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가는 탐사여행을
OLT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OLT프로그램은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합니다.

· 코스 기간은 5일간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인원한정)
· 예약은 e-mail로도 접수 가능

자신의 현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코스에 참여하세요.
·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8-3(신우신빌딩 2층)
· 문 의 : 017-201-5512 · 053-622-5511(대)
· E-mail : youha@oltcenter.com

행주좌와 일여체험

수행의 첫째단계인 행주좌와 일여의 체험도 없으면서 깨달은 척, 도인인 척 싱을 내어 봤자 스스로는 속이지 못하는 법
여기!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쉽고 재미있으며 심신에 절대 이상이 오지 않으며 일생 약 한톨 필요없고 저절로 수행이 되어지는 많은 선지식이 확인한 수행의 장으로 오십시요

◆ 출가 예정자 수행 체험(30일, 일체 비용 없음)
수행 위주의 철저한 대 신심 체험 교육으로 불교수행의 신심나는 테크닉을 배우게 됩니다.
수계식도 못해보고 낙오하는 인생의 오점을 씌지말고 체험의 장으로 오십시요

◆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7일 수행 교육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독경, 염불, 행선, 참선의 자세법, 운률법, 호흡법, 염불禪 삼매의 자동원리, 도인체조건강법

◆ 사업실패자, 명예퇴직자, 실직자, 실업자 소원 성취 기도
실패, 실직, 실업의 원인을 성공의 비결을 응기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불면증, 화병, 상기병, 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당뇨, 환상 환시 환청, 악몽, 가위눌림, 당뇨, 디스크, 대인 공포증, 마마보이, 이형성 인터넷 중독자 특별수행을 통해 단시일에 극복됩니다.

▶ 수행일시 : 언제나 수시로 ◦ 준비물 : 기도포, 세면도구
▶ 10월 행사일정 : 13일 철야 정진 ◦ 27일 : 3천배 철야 정진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 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요
◎ 경기도 양평 → 용문터널 → 단월면 → 대명 비발디 파크 스키장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다음넷 카페 : 소리산 참선 캠프 클릭)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일이면 레이키 요법가 (氣 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병한 보통사람이 3일만 교육 받으면 레이키 요법가 (기 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길이 의심할 여지없이 있습니다. 레이키는 우주 근원의 생명 에너지(진기)이고 사랑의 파동입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질병 치료에도 쓰고 건강 증진에도 쓰는 것이 레이키 요법입니다. 레이키 요법은 미국, 일본등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레이키 요법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 「레이키 요법가」를 단 3일만에 양성 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박희준식」 레이키입니다. 기공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기 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단 3일간의 교육으로 누구나 이런 능력자가 됩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 의료 종사자(침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인 등
- 각종 만성병 환자나 그 가족, 만성병 환자(특히 각종 난치병 환자)는 병원 치료와 함께 레이키 요법을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월등히 올라 갑니다
- 마음의 정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가족의 건강과 행복,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의 몸에서 생명 에너지인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치우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질병입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것을 신속하게 개선해 줍니다. 따라서 수천가지 질병에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 받으면
- 수천가지 질병에 대한 표준적 치료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하루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자기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 있는 한국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의 레이키계에서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정증은 올바른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받았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교육이 끝난 1개월 후 에는 원격진단법, 약식재령법 등의 무료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